

# “좌편향에 대한 반대명제이자 학문적 균형잡기”

글\_ 조우석(《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한국전쟁의 기원》의 저자 브루스 커밍스는 한참 뒤 발표한 다른 저술에서 근현대 한국사야말로 “20세기의 가장 놀라운 성취”(14쪽)라고 언명한다. ‘태양의 나라’로 손색 없다는 표현과 함께...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2001, 창비) 한국어판과 원저 서문에서 반복돼 나오는 구절인데, 근현대사에 대해 비판적인 수정주의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이의 발언으로 뜻밖이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의 표현대로 “(근대적인 것을 재는) 저울의 거의 바닥에서 20세기를 시작하여 거의 꼭대기에서 20세기를 마감한”(12쪽), 유례없는 역사가 한국 근현대 아니던가.

이어지는 사례 깊은 그의 다음 말도 음미해보자. “나는 한국현대사의 격렬한 동요와 복잡성 앞에 여전히 놀라고 겸허해진다.” 자,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사를 둘러싼 논란이란 ‘집단의 기억을 선점하는’, 가히 역사 내전 양상이다. 아카데미즘 내부의 게임이었다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치현실과 얽혀있고, 저널리즘이 개입된 매우 착종된 국면이다. 그 점에서 커밍스가 언명한 ‘경이로움’과 ‘겸허함’이란 어휘, 거기에서 묻어나는 마음의 자리는 되새김질해볼 가치가 높다. 칼 같은 재단, 그리고 쉰 목소리를 앞세우기 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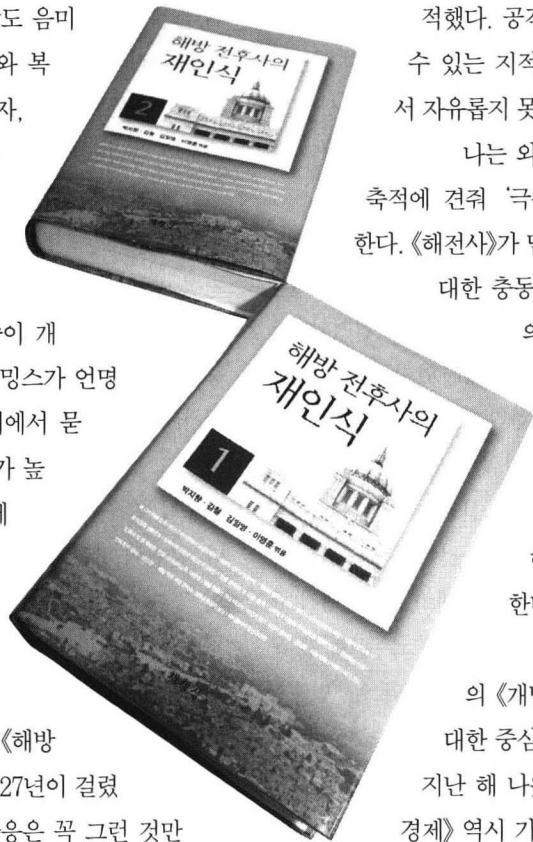
논란 속의 텍스트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에 대한 비판적 지지 쪽인 내가 볼 때 판단은 간명하다. “나올 책이 나왔다.” 바로 그것이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 이후 무려 27년이 걸렸다는 지각 출간이 아쉬울 뿐이다. 사회 반응은 꼭 그런 것만

은 아니어서 외려 놀랍다. 적지 않은 이들이 《재인식》을 정파적 현대사, 뭐 그런 정도로 간주하려든다. 이런 반응이야말로 지적 폐쇄성을 반영할 뿐이다.

단정적으로 말해 《해전사》는 일정부분 시효를 넘긴,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꽤나 낡은 책이다. 그 점 엄연하다. 또 마음이 앞선 저술이라서 정교하지 못하다. 그걸 외면하는 것은 지난 10여 년 학계 동향에 둔감하다는 얘기일 뿐이다. 《재인식》의 대표 편저자인 이영훈 교수는 “(《해전사》는) 1980년대 좌파 민족주의 진영의 정치학에 충실한 실천적 역사쓰기에 다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공격적 어조가 조금 걸리지만, 웅당 던질 수 있는 지적이다. 근본주의의 함정과 선악사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한계다.

나는 외려 《해전사》는 1990년대 이후 학문적 축적에 견줘 ‘극복중인 담론’이라는 점부터 지적하려 한다. 《해전사》가 담고 있는 민족주의 열정과 민중혁명에 대한 충동은 1990년대 말 이후 나온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2》나 《전쟁과 평화-한국 1950》같은 박명림의 출중한 저술로 어지간히 상쇄가 됐다. 유영익의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나 전상인의 《한국현대사 진실과 해석》도 무시 못 할 학문적 소득에 속한다.

경제 부문 쪽의 논의인 이병천 외의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역시 현대사에 대한 중심잡기 작업을 거뒀던 성취다. 여기에 지난 해 나왔던 장하준-정성일의 《캐드노마 한국경제》 역시 기존의 좌우 구분이 갖는 시대착오적 현



상을 무화無化시킨 저작으로 훌륭했다. 문제는 1990년대 전후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는 이들 인식이 지식대중 일반에게는 한참 멀었다. 그게 문제였다. 이 통해 《해전사》는 반사이익을 챙겼다.

왜 그런가. 책이란 한 시대의 산물이다. 《해전사》 역시 예외 아니다. 7,80년대라고 하는 질풍노도시기를 상징했던 《해전사》는 해방 이후 단일 저작물로는 그 중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빅 타이틀임이 분명하다. 판매량도 무시 못했지만, 한 사회의 지식 패러다임을 규정했다는 점에서도 '20세기의 책'으로 꼽아야 할 시리즈물이었다. 이 대목, 가치판단과 상관없이 흔쾌히 인정한다. 곤혹스러운 점은 그 영향력이 너무 오래갔다는 점이다.

즉 지식사회가 주도해서 그런 사회적 공기를 만들었으면 서도, 그 공기 혹은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멈칫거린 탓이다. 그런 직무유기 사이에 《해전사》는 한국현대사를 보는 유일한 패러다임이라는, 권위 아닌 권위까지 부여받았다. 주류적 인식의 위치로 올라선지 오래인 지금 고약하게도 '속화無化된 이해'가 유포되기 시작했다. 대학가를 포함한 젊은 층들은 한국전쟁이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려들지 않는 수준으로 치달은 것이다.

오해 마시라. 앞서의 내 말은 남침을 강조하는 반공교육의 멘탈리티 따위와는 전혀 인연이 없다. 해석의 틀 하나가 기초적인 사실에 앞선다면 그게 문제 아니던가. 경이로움-겸허함은 물론, 여기에 지적 정교함까지 결합한 현직 대통령 한 분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해전사》를 읽고 "괴가 거꾸로 흘렀다"고 한 것 역시 대중적 속화의 사례다. 불충분한 현대사 인식은 자기모멸을 넘어 일제시대-동학혁명으로 과거사 청산에 대한 신앙적 결단으로 이어졌다.

어찌됐던 지금의 50대 연령에서 30대까지는 '해전사 세대'다. 20대 이하 역시 속화無化된 《해전사》 이해를 가진, 범 해전사 세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1990년대 이후 학계와 출판물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대사 해석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다. 때문에 화석화된 수정주의적 한국현대사 인식을 전부인양 받아들인다. 이런 현상은 《해전사》로 상징되는 한국의 수정주의적 현대사 해석이 가져온 해방적 역할 내지 순기능마저를 간단하게 무화無化시킬 뿐이다.

반독재 민주화 명제와 맞물려 우리 구성원들과 사회를 단련시켰던 역사인식이 2000년대 현실 속에서 서걱거리며 걸돌 때, 사회적 갈등, 소모전 양상으로 모습을 바꿔 나타난다. 쿨하게 말해 《해전사》의 역사인식은 넓게 보아 국제적 수정주의 해석의 한 갈래다. 수정주의적 역사해석은 2차 대전 이후 냉전과 미소 분쟁을 새롭게 보려하는 탈 정통주의의 패러다임인데, 한국의 수정주의는 6월 대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학문적-현실적 체계모니까지 쥐었다.

고약하게도 국내의 보혁논쟁 구도와 맞물린 한국적 현실 속에서 학문 외적 권위마저 등에 업었다. 한 세대 전 소수의견으로 등장한 뒤 이제는 주류적 인식을 행세하는 지금 그것은 현대사

자학사관이라 할 만한 과도한 정체성 비판, 실패한 모델인 북한에 대한 턱없는 경사欒料로 이어졌다. 이 통해 우리사회 보수주의자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 《재인식》의 출현은 이런 현상에 대한 반대 명제이자 학문적 균형잡기 노력이다. 새 책에 정치적 함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게 사실일지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 점에서 《재인식》은 현대사를 보는 해석들의 참신한 제안의 하나로 평가되어야 옳다. 민족 담론에 포박된 형국의 '답답이' 국사학계가 지금껏 버벅대고 있을 때 서양사-정치학-사회경제사-문학 영역 등 인접분야에서 치고 들어와 《재인식》을 만들어냈다는 뒤바뀐 양상도 흥미롭다. 그러면 《재인식》은 과연 만족스러운가. 그건 다른 문제다. 우선 '재인식의 철학적 토대' 격인 이영훈의 글은 너무 뽕족하다. 보는 각도에서는 가치 한 시대의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역시 '해전사' 만큼 마음이 앞섰다. 포즈와 메시지는 쿨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수록 글들이 충분한 대표성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다. 이 정도의 소문 난 잔치판이라면 꼭 들어갔어야 할 연구자와 그들의 글들이 빠졌다는 점도 한 눈에 들어온다. 굳이 어떤 글이라고 언급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영훈의 앞선 마음이 걸림돌 역할을 한 결과로 가늠된다. 그 점 꽤나 유감스럽다. 글들의 완성도와 시각들도 이렇다저렇다. 《재인식》 2권의 앞머리를 장식한 이정식의 글은 분단책임론을 거론한 핵심 논문.

문제는 분단고착화의 핵심으로 지목돼온 이승만의 정음 발언 훨씬 전에 나왔다는 문제의 스탈린 비밀지령을 너무 협애하게 해석하고 있지 않나 싶다. 《재인식》에 달랑 이 글이 실려 있어, 일부 유사 진보진영으로부터 이념적 편향으로 오해를 살까 우려스럽다. 조금 전에 나는 비판적 지지자라고 밝혔다. 전폭 환영이 주저됐던 것은 앞에 밝힌 이리저런 까닭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책에 정치적 함의를 운운할 만큼 꼭 막혀있지도 않다. 어쨌든 간에 《재인식》의 등장을 환영한다. 이걸 계기로 보다 양질의, 다양한 탈근대 사학 입장에서 담론들이 풍성해지길 기대한다. **\*\*\***